서효인의 '소설처럼'

그때 내가 그러했던 일 -위수정 소설집 '우리에게 없는 밤'

인생은 모두가 아는 특별한 순간에 엄청난 결정으로 정해지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한 순간이나 결정이라는 건 엔트로피가 폭발하는 지점일 텐데, 그것은 이전에 숱한 에너지가 차곡차곡 모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지금의 결정과 운명은 어쩌면 예전에 내가 쌓아올린 자연스러운 결과물에 불과할는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미래의 나를 지금의 나로부터 크게 바꾸려면 더한 에너지의 변환이 필요하다. 어느 한순간의 결정과 충동적인 결심으로 삶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하기에 삶은 죽음 직전까지 지속적이고 지난하게 복잡하다.

그럼에도 가끔은 과거의 특정한 순간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다. 1999년 겨울이나 2022년 봄이면 어떨까. 그보다 좀 더 명확해도 괜찮을 것이다. 가령 그 시절에 공부를 더 열심히 했다면 지금 내 직업은 이게 아니지 않을까. 그날 너를 만나 사랑에 빠지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어떨까. 그날 그에게 제대로 화를 냈다면 지금 와 내 마음은 더 나을까. 그날 길고양이를 구조해 키우지 않았다면 나는 다른 사람이 되었을까. 부질없는 일이지만 부질없어서 하릴없이 하고야 마는 생각들. 내가 그때 그랬지. 그때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가…….

위수정 소설집 '우리에게 없는 밤'은 되돌릴 수 없는 시간과 되돌릴 수 없는 게 시간임을 알면서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인간의 여러 면모를 그려낸다. 시간을 자유롭게 오가는 판타지 소설은 아니다. 시간을 물리적으로 뒤트는 SF는 더더욱 아니다. 하지만 위수정의 소설은 읽는 이의 시간을 뒤틀어 그사이를 오가게 한다. 지지부진한 인물, 맹목적인 인물, 입체적인 인물의 시간과 운명을 따라가다 나의 시간과 운명을 생각하게 한다. 내 시간과 운명에 끌려 나와 함께 있게 된 곁의 사람의 눈을 보게 한다.

표제작 '우리에게 없는 밤'의 '지수'는 SNS를 통한 조건만남으로 돈을 번다. 사회적 통념은 지수를(지수의 성을 구매한 자들보다 우선하여) 공격하고 비판할 테지만, 소설의 세계는 잠시 멈추고 지수를 바라볼 것을 권유한다. 지수의 친구 '은선'은 이른바 '캣 맘'이다. 고양이를 구조해 키우고, 길고양이를 돌본다. 지수는 일을 하며 폭력에 노출되어 있음을 실제 위험보다 걱정하지는 않지만 은선은 고양이를 돌보며 맞닥뜨릴 수 있는 폭력에 사뭇 불안해한다. 팬데믹 시기의 젊은이들은 사랑하는 것을 충분히 지킬 수 없는 법과 현실 앞에 무력하고, 그러한 현실 안에서 무엇이 되어야 할지 몰라 무기력하다. 소설의 끝에서 지수는 끝내 SNS 계정을 폐쇄하지만, 그것이 불법적인 아르바이트를 그만둔다는 사실을 넘어서는 희망을 가져다주는 것이라 쉽게 해석하긴 어렵다. 어떤 이들에게 이곳은 폐허뿐이고, 사랑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멀리에 있다. 지수나 은선에게. 그리고 당신에게도.

'아무도'의 주인공 '희진'은 남편이 아닌 사람을 원한다. 그리하여 남편 '수형'과 헤어짐을 결심한다. 희진은 수형을 설득해 별거를 결정한다. 부모님께 사실을 알리고 홀로 살아가려 애쓴다. 그토록 원하는 그에게 연락하지만, 이 사랑에 미래가 없음도 안다. 도리어 생각한다. 미래가 없는 게 무얼까. 그게 뭐 어쨌다는 건가. 희진은 1999년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이다. 앞서 소개한 작품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통념은 희진을 비난할 것이다. 하지만 소설은 또 한번 멈추어 바라볼 것을 권한다. 현재와 미래란 무엇인지. 과거의 어느 순간을 잊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은 미래라는 게 가능한 일인지. 너무 차가운 나머지 뜨거운 고통을 주는 게 우리가 원하는 미래인 것인지.

'멜론'은 사랑하는 사람과 평온한 일상을 살던 40대 여성의 임신 이야기이다. 오직 축복이거나 혹은 현실의 고투여야 할 임신과 출산을 작가는 집요한 눈으로 좇는다. 축복과 고투 사이의 무엇을 작가는 내어놓는다. 그것은 다디단 멜론의 살이기도 하지만, 손에 묻어 불쾌하게 끈적한 과즙이기도 할 것이다. 소설은 삶의 시간을 이토록 뒤틀고 뒤집는다. 시기별 과업에 지친 이들에게 위로 아닌 위로를 준다. 그렇기에 소설은 특별한 순간, 엄청난 결정은 아니더라도, 삶의 속도와 방향에 예민한 감각 하나를 더할 수 있다. 〈시인〉

의료칼럼

급성고혈당 쇼크

양 태 영
태영21내과원장
대한당뇨병학회 부회장

배우 고(故) 김수미의 사인이 급성고혈당쇼크로 알려지면서 일반인에겐 생소하기도 한 급성고혈당쇼크에 대한 문의가 많다.

필자가 레지던트 시절엔 급성고혈당 쇼크로 응급실로 온 환자 케어를 위해 밤샌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요즘은 의사든 환자든 이런 합병증을 미리 예상하고 치료를 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지만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여전히 주의해야 할 질환이고 합병증이다. 전문의학적 용어는 Diabetic KetoAcidosis(당뇨병성케톤산증)와 Hyperosmolar Nonketotic Coma(고삼투압성 비케톤성 혼수)이다.

당뇨합병증은 급성합병증과 만성합병증이 있다. 오랜 기간(10년 이상)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신체에 여러 합병증이 발생한다. 가장 중요한 합병증은 뇌졸중과 심근경색증, 협심증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이고 이 심혈관계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혈당조절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다른 합병증인 투석과 같은 신장질환과 망막병증 역시 미세혈관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모든 합병증이 혈관의 문제인 것이다. 이런 걸 당뇨병의 만성합병증이라고 하고 대부분의 당뇨인들이 걱정하는 합병증이다. 반면, 오늘 소개한 급성합병증은 당뇨의 유병기간과 관계없이 발생한다. 심지어는 급성 고혈당쇼크로 응급실에 실려 와서야 본인이 당뇨병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꾸는데 필요한 호르몬이 바로 인슐린인데, 이 인슐린작용에 문제가 생겨 포도당을 에너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당뇨병이다. 즉, 혈액속에 있는 포도당이 근육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아 포도당이 근육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에 그대로 남게 되어 혈당이 높아지면서 당뇨병이 생기는 것이다.

혈당은 아무리 단 음식을 많이 먹고 과식을 하더라도 보통은 180mg/dL 이하로 유지된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여 쇼크까지 오게 될까? 일단 당뇨병이 없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원인은 당뇨병 치료 중 약물을 중단한 경우(가장 흔함), 독감, 코로나, 요로 감염 등의 질병으로 몸에 염증이 생긴 경우, 그리고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가 급성 고혈당쇼크의 주요 원인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쇼크까지 오지 않지만 대개 고혈당이 급격히 심해지면 물조차 마시기가 힘들어져서 극심한 탈수가 동반되어 쇼크가 온다.

대표적인 증상은 먼저 소변량이 많아지고 탈수가 생긴다. 그리고 어지러움, 피로, 집중력저하, 인지장애 등이 오면서 구역질, 구토, 복통이 발생해 물조차도 마시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현상들은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환자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루 이틀 사이에 급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당뇨병의 만성합병증에 비해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당뇨병 및 당뇨합병증은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치료 및 예방은 어렵지 않다. 먼저 당뇨인들은 약물을 임의로 중단해선 안된다. 식이와 운동이 중요하지만 한계가 있다. 약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경우에 따라선 인슐린도 맞아야 한다. 평소 충분한 수분섭취로 탈수를 예방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본인의 몸 상태를 파악하는 습관도 필요하다.

그동안 수많은 당뇨병 치료제가 개발되고, 진단과 치료방법도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지만 24시간 내내 정상혈당을 유지하기는 매우 어렵다. 혈당조절이 잘 안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잘못된 식습관, 운동부족, 스트레스, 과체중, 과로 등 생활습관의 문제인 경우가 많다. 즉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해 당뇨병이 발병되고 악화된다. 우선 설탕, 꿀, 음료수 등 입에 넣으면 달다고 생각되는 음식을 최대한 줄여보자. 간식, 야식, 과식도 안하려고 노력해보자.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보자. 처음부터 쉽지 않다. 그렇다고 못할 것도 없다. 생활습관을 바꾸려는 노력과 함께 당뇨약제를 잘 선택해 혈당을 정상범위로 유지하면 급성고혈당쇼크와 같은 급성합병증, 심혈관 등과 같은 만성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

기 고

친환경데이터센터 전남으로 유치해야

박 웅 희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현재 우리는 아날로그(Analog)보다 디지털(Digital)이 익숙한 시대에서 살고 있다. 일상이 디지털화되면서 디지털 사회로 진화하고 있고, 디지털 경제 규모는 급성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한 가상의 공간에서 유통되는 대규모의 데이터를 잘 보관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데이터를 집적화한 시설도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예전에는 고속도로, 철도, 상하수도 등이 경제활동의 사회간접자본(SOC)이었다면 지금은 데이터센터가 핵심 경제 인프라로 관심을 받고 있을 정도다.

지금을 초연결 지능정보화 사회라고 말한다. 데이터(D), 네트워크(N), 인공지능(A) 등 D.N.A의 활성화가 핵심이며 그중에서 데이터가 디지털 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데이터센터는 서버, 네트워크 회선 등을 활용해 방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안정적으로 통합 및 관리하기 위해 24시간 365일 무중단으로 운영되는 대형 컴퓨터시스템이다. 또한,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고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에너지시스템의 특성도 함께 보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데이터센터는 디지털기술과 에너지기술이 복합적으로 활용되는 융합형 비즈니스 모델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나라 데이터센터 수는 2000년 52개였던 것이 2022년 187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9년에는 637개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데이터센터의 60%, 전력수요의 7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전력공급이 어려우므로 수도권에는 데이터센터를 지을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데이터센터의 또 다른 이슈는 '전기 먹는 하마'라는 부정적 특성이 있어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탄소배출량을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글로벌 데이터센터 기업들도 전력 소비에 따른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최대한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효율을 개선하는 등 RE100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업들의 데이터센터 입지 수요에 대응해 적기에 데이터센터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이라는 전제조건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데이터센터에 공급하는 전력을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센터의 냉각 효율을 높이거나, 발생한 열을 회수해 재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지역의 전력수급 여건을 담은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분산정책을 발표했다. 데이터센터 입지를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빈발지역, 송전 제약 발생지역, 수열·냉열 연계 가능한 지역으로 분산 유도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전남은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전력·에너지 공급원이 가장 풍부하고 충분한 계통접속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친환경데이터센터 입지의 적지로 평가받는다. 전남이 추진 중인 30GW 해상풍력, 6GW 대규모 태양광 집적화단지, 영농형 및 산단형 태양광 집적화단지 등도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한 좋은 경쟁요인이 되고 있다. 즉, 친환경 데이터센터 유치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청정에너지가 버려지지 않고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정보인프라를 확보하는 방안이다.

따라서 전남은 친환경데이터센터 유치를 통해 정보기술과 에너지 융복합을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 수 있고 지역 내 정보인프라 구축으로 전·후방 연관산업이 동반 성장할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된다. 철강, 화학, 조선 등 주력산업과 농·수산 등 대표산업 관련 전남의 산업적 특성을 활용한 공공형 데이터센터를 특화 발굴하고 특구로 지정받아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청년들이 선호하는 정보통신 분야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전남의 청년유입 정책과도 연계가 가능할 것이다.

버려질 수 있는 친환경에너지를 비즈니스 기회로 활용될 수 있는 전남 데이터센터 유치는 일거양득의 사업이 될 수 있다. 이는 전남이 '글로벌 에너지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디딤돌 역할의 잠재력도 갖고 있다. 여러 지자체가 유치를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전남이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 지체하지 말고 철저한 추진 로드맵을 준비해 친환경데이터센터가 전남에 더 많이 세워지고 지역이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社 說

'금타' 공장 이전 서두르되, 투자이행조치 강화를

공장부지의 매각 전 용도변경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수년 간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함평 이전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금호타이어 이사회가 3년 전 계획했던 함평군 빛그린산업단지로의 이전을 실행하기 위해 부지 매입을 결정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광주공장 이전 부지 조성사업을 위한 협약'을 맺고 116억 원의 협약이행 보증금을 지급했으며, 이제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토지 매입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금호타이어는 최근 '유형자산 취득결정'을 자율공시했다. 함평군 빛그린국가산업단지 2단계 사업구역의 토지 50만㎡를 1160억 8417만원에 매입한다는 게 공시 주요 내용이다. 취득일은 30일로 토지주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매입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금호타이어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신공장 착공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지역 사회와 경제계는 여전히 금호타이어에 대한 불신과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현재 금호타이어는 지역과 관련이 없는 중국 자본 소유인 탓에 공장 이전 비용만 1조 4000억 원이 드는 대형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호타이어는 현 공장 부지를 비싸게 팔 수 있도록 매각 전에 주거·상업 용지로 용도변경해 줄 것을 광주시에 요구하고 있다. 건설 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 투자자본을 마련하려면 용도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광주시는 현 공장 폐쇄후에야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종사자와 가족을 감안하면 수천 명 이상의 생계가 달린 곳이다. 광주시는 광주공장 부지의 용도변경과 매각 문제를 풀되, 금호타이어 측이 반드시 공장 이전을 이행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교사 못 지키는 이름 무색한 교권보호 위원회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교사 인권을 지켜야 하는 교권보호 위원회(교보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생징계 처분이 결정되면 처분수위에 불복할 방법이 없고, 교보위 개최 자체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29일 순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순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A씨가 복도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던 도중 자신의 학급 학생 B군으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해 교보위가 개최됐다. 여러 학생들 앞에서 B군이 뒤돌아 있는 A씨를 향해 허공에 주먹질을 하는 시늉을 하자 수치심을 느낀 A씨가 학교측에 교보위 개최를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교보위는 사건 발생 3개월이 지난 9월에 열렸고 그마저 A씨에게 '교권침해는 인정되나 학생에 대한 조치 없음'이라는 결과를 통보했다. 교보위가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0~4점이 나와 '처분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문제는 피해교사가 징계 수위에 대해 불복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교보위가 '교육활동 침해사안 아님'이라고 결론낼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재판단을 요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교보위 소집 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도 문제다. 교육부의 '2024 개정 교육활동보호 매뉴얼'에는 교사 보호와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이후 21일 이내에 교보위를 소집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때문에 A씨처럼 교보위 개최까지 21일 이상 걸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교사들의 인권을 지키지 못하는 교보위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 특히 징계수위에 대해 불복할 장치가 없다는 것은 또 다른 인권 침해다. 교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 교보위에 강제력을 부여하는 등 현실성 있는 대책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동명동 커피 산책

사람마다 자신만의 여행법이 있다. 나는 낯선 곳을 여행할 때면 두 가지를 꼭 하는 편이다. 첫 번째는 여행 코스를 짤 때 그 지역 동네책방을 찾아 보는 것이다. 요즘에는 작은 도시에도 좋은 책방들이 꼭꼭 숨어 있어 찾아가는 재미가 그만이다. 특히 책방을 중심으로 구불구불 골목길, 작은 소품점, 카페 등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공간들이 많아 여행의 즐거움이 더 커진다.

또 하나는 그 도시의 카페에서 직접 볶은 커피 원두를 구매하는 일이다. 그윽한 커피향을 만끽하며 카페에서 한잔 마시는 것도 좋고, 무엇보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집에서 콩을 갈아 커피를 내려마시면 그 때의 풍경이 다시 떠올라 '두번째 여행'을 하는 기분이 든다.

가을빛이 완연했던 지난 26일 광주의 핫플 동명동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여느 날과 달랐던 건, 장미꽃이 담긴 바구니를 들고 거리를 걷는 이들을 만날 수 있었던 점이었다. 바구니 속에 담긴 건 동명동 카페 지도와 재활용 컵. 'NO RUN JUST WALK'에 참여한 사람들은 카페에서 커피를 시음하고 디저트를 먹으며 미션을 수행했다. 종이컵을 사용했던 지난해와 달리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젊은이들의 취향을 반영, 재활용컵을 제공한 것도 의미 있었다.

4회째를 맞은 '2024 동명 커·피 산책'은 동명동이라는 장소적 특성을 잘 살린 행사였다. 타깃이 정확하다 보니 참여자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하이라이트 행사는 핸드드립 카페 19곳이 참여한 'JUST AWARD'. 각각의 카페가 내놓은 커피를 마시며 취향에 맞는 원두맛을 찾아 투표하는 프로그램으로, 그윽한 커피향에 빠져 시음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행복해 보였다.

올해 어워드 우승자는 동구 계림동의 '카페 서정적'이었다. 첫 대회에서는 동명동의 '물고기 자리'가, 그 다음해에는 산수동의 '굿바이 로맨스'가 우승했다. 수상 카페의 커피 원두와 드립백은 동구의 고향사랑기부금제 사은품으로 사랑받고 있다.

'테라로사' 등 유명 커피점이 즐비한 강릉의 커피축제는 인기가 높다. 동명동은 무조건 규모를 키우기 보다는, 동명동만의 색깔이 담긴 알찬 프로그램으로 탄탄하게 꾸려가면 좋겠다. '작지만 강한 축제'로 말이다. /김미은 여론매체부장 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 편집인 崔宰豪 논설실장 蔡熙鍾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24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예향부 220-0692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경제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제2사회부 220-0680	디지털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